

자원 봉사자의 호스피스 영성

-제7회 세계 병자의 날 행사 특강 중 발췌-

이승찬 신부/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지도신부



호스피스 활동을 어디서 시작하는가? 호스피스 활동이란 임종자들에 대한 배려이다. 바로 영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이다.

그러면 임종자란 누구인가?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이들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라도 아직 죽은 이가 아니며 이들도 살아 있는 고유한 인격체이다.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생명은 얼마나 고귀한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이들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들은 함축적인 이야기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인 것이다. “과연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부정적으로 나오

는 말들(거짓말이 아닌 거짓말), 무력감이 배어나오는 툭툭 던지는 말들, 봉사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질투심을 나타내고 체념하면서도 살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며

남은 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이 임종자들의 마음인 것이다.

죽음은 당사자의 문제이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환자를 대했는데도 환자들은 쌀쌀함을 보일 때가 있으며 이때 봉사자는 상처를 받게 된다.

죽음은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다. 당연하게 느끼는 이 마음이 임종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시간 안에서 죽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야만 한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굴욕적으로 죽어가야 하는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이다. 사랑이 주는 강력한 힘은 죽음을 능

가하는 힘이다. 사랑의 힘 안에서 죽어 간다는 것과 같이 한다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활동인 것이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임종자들을 인도하고 사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인가?

임종자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임종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다. 이 가족들이 임종자들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환자들은 아프다는 사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짐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치의는 의학적인 지식으로 환자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의사가 임종자들 옆에서 잘 지킬 수 있는가? NO! 그들은 시간이 없다. 또한 그들은 죽음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실패로 받아들인다.

간호사는 환자의 투병 생활에서 가장 가까

운 존재이나 그들은 자신의 일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업무가 많다.

사목자(신부, 수녀)가 임종자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병실에 대해 낯설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환자는 주변 정리가 안되거나 화해가 안되었을 때 신부님을 거부하기도 한다.

봉사자의 역할은 어떠한가?

봉사자가 병원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낯설음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를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봉사자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낯설음과 무기력의 마음이 임종자의 마음과 같다. 이런 부분에서 봉사자들이 좋은 인도자,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봉사자의 역할은 임종자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이나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갈 때나 떨릴 때는 화살 기도를 하라.

